



#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매도시 교류

기시와다시(岸和田市)는 오사카부 남부에 위치하며,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차와 전철로 30분, 오사카 시내에서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기시와다시는 바다에서 산에 걸쳐 가늘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입해부, 평야부, 구릉부, 산지부로 나뉘어 있다. 풍요로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로 인해 수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고 많은 역사적 유산이 있다. 또 전통행사인 '단지리 마쓰리(だんじり祭り)'는 일본에서도 유명하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자매도시 교류

기시와다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다. 영등포구 의회 의원이 1992년 오사카부 내 지자체 가운데, 일한 우호 의원연맹을 설립하고 있던 기시와다시 의회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31일 자매도시 체결 이후, 행정에 머물지 않고 문화, 스포츠 그리고 청소년 교류로 확대되며 시민 간에 서로 친분을 쌓고 있다. 문화 교류는 기시와다시 '시진 수상 작품전'과 영등포구 '목련전'에 격년으로 번갈아 문화 단체의 작품을 합동 전시하고 있으며, 이 때 문화 시찰단을 받아들여 문화단체 간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스포츠 교류는 격년으로 KIX 센슈 국제 마라톤과 서울국제마라톤에 각각 선수를 상호 파견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기시와다 시립 산업고등학교와 영등포구 한강미디어고등학교가 자매학교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 중이다. 서로 학교를 방문하여 필드워크나 홈스테이 등을 통해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체험하면서 국제 감각을 몸에 익힌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 기시와다시의 경관

기시와다시는 바다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카마치(城下町, 성하마을)다. 선인들이 가꾼 경관을 차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마음에 남는 경관 자원 발굴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리 설정한 '수목' '거리' '수변' 등의 테마에 응모한 경관 자원 가운데, 특히 뛰어난 51건을 '마음



에 남는 경관 자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한다.

## • 기시와다성

기시와다시의 상징으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기시와다성(岸和田城)은 기시와다의 대표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다. 1585년 본격적인 성곽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640년 오카베 씨(岡部氏)가 입성한 이래, 13대에 걸쳐 기시와다를 통치했다. 천수각은 1827년 벼락으로 소실되었으며 1954년 중건되었다. 또 시게모리 미레(重森三玲氏)에 의해 조성된 정원인 하치진노니와(八陣の庭)와 함께 2014년 일본의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부터 남아 있는 돌담과 헤지는 품격과 기품을 유지하고 있으며, 벚꽃이 필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등 기시와다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카(大阪)와 와카야마(和歌山)를 잇는 기슈카이도(紀州街道)에 위치한 '혼마치(本町)'는 성하마을로 변성했으며, 전통적인 가옥이 늘어선 경관은 기시와다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이 혼마



치가 단지리마쓰리(だんじり祭り)에서 사용하는 밧줄은 기시와다 번주가 하사했다고 한다.

## • 구메다이케

산에 있는 지역에는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남아있는데, 특산물인 가네치카(包近) 복숭아와 가지의 일종인 센슈미즈나스(泉州水ナス), 온슈(温州) 귤과 무화과 등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농업에 필요한 수원으로서 오사카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구메다이케(久米田池)도 볼 수 있다. 738년 승려 교키(行基)가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둘레가 약 2.7km인 인공연못으로 2015년 세계관개시설 유산에 등재되었다. 또 1년 내내 다양한 야생 조류를 볼 수 있어 '새의 국제공항'이라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수년간 지켜진 광대한 구메다이케가 계절과 시간 별로 표정을 바꾸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 • 산과 바다

기시와다시 남부의 산간부에서는 온욕 시설 '이요야카노사토(いよやかの郷)'와 단풍의 명승지 '우시타키산 다이이토쿠지(牛滝山大威徳寺)'의 정적, '이치노다키(一の滝)'를 비롯해서 낙차가 있는 폭포와 우시타키가와(牛滝川) 계류, 이즈미카쓰라기산(和泉葛城山)의 너도밤나무 숲 등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시의 중앙부에는 고노야마(神於山)를 원류로 하는 하루키가와(春木川)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산의 혜택을 받은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은 오사카부 제일의 어획량을 자랑하며, 기시와다 시내의 음식점에서 즐길 수 있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그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어선에 걸린 대어기가 무수히 휘날리는 풍경은 바다와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과 전통, 문화를 지닌 기시와다만의 경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관이란 눈에 보이는 경치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 나아가 사람들의 인상과 추억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에 남는 경관 자원 발굴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경관 자원에는 각 응모자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다. 이런 기시와다의 뛰어난 경관을 접한 모든 분이 각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갖게 되었으면 한다.

(집필: 기시와다시, 협력: CLAIR, Seoul)